

사랑의 땔감 나누기 '훈훈'

진안군, 취약계층

30세대 120톤 지원

진안군은 21일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12년째 운영되고 있다.

행사는 숲가꾸기 및 산림 페트를 등 경관녹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게 난방용 땔감을 지원해 난방비 절감은 물론 따뜻한 온정도 함께 배달하며 대상자들에게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올해 전달 대상자는 11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로 세대당 4톤씩 총 120톤의 난방용



진안군은 21일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

땔감을 11월 22일까지 대상 세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어 오는 동안 총 431세대에 1,480톤의 땔감을 나눠 온정의 운동을 높였다.

진안군은 본 행사를 통해 숲 가꾸기 및 산림페트를 서비스 사업으로 발생되거나 방치되는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삽종호우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화석연료 대체로 저

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동원 농신촌미래국장은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취약계층

57세대 300톤 지원

장수군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2024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중이며, 20일 장수읍에서 '일일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숲가꾸기 사업장 및 공공산림기구기 현장 등 산림사업장에서 수집한 임산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난방용 땔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눔 행사이며, '일일 나눔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 등 약 30명이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57세대로 장수 관내 땔감이 필요한 기초생활 보장



장수군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2024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 중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명단을 추천받아 선정해 300여 톤의 난방용 땔감을 가정에 직접 방문 전달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

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마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다양한 임산물을 활용한 산림복지 실현에 장수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청 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 일환 이불 전달



진안군청 신협의 나눔활동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철승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서민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신협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진안군청신협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 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친환경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6



무주군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2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관리 제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주력

무주군-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2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제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창준 한국수자원공사 김강우여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고품질의 안전한 수도서비스 제공과 상수도 관련 선진기술 지원 등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을 토대로 지역 내 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진단 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를 검토해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개선,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정수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사업진단을 위한 자료 제공과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전담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사업진단을 비롯해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맡게 된다.

무주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협약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 상수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수도 전문기관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체계적인 사업진단을 통해 상수도 사업이 경영 효율과 유수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의 상수도 시설은 취·정수장 6곳(17,100m³/일)과 배수지 9곳(11,336m³), 가압장 74곳과 관로(515.8km), 급수전(10,749전) 등으로 급수인구가 2만여 명(급수보급률 87%)에 이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슬기로운 진안생활

임업편 강좌열려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청년 wifi 끌별집' 2층 교육실에서 전입자와 군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진안생활 - 임업편' 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전체 면적의 80% 가까이 산지로 이루어진 진안군이 '귀농촌이 아닌 귀산촌'을 마음 먹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에 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강좌에서는 진안군청 산림과 김무성 주무관이 진안의 임업 현황과 지원정책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귀농귀촌 멘토인 정일기 임업후계자가 진안에서의 임업 방향과 임업후계자 교육 등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졌다.

또한 신규 전입자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진안군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들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건강강좌 '호응'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고당센터')가 면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강강좌'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백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강강좌에는 고혈압·당뇨병이 있는 백운면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고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학생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학생의원들이 제안한 안건 목록은 △무주지역 학생회 연합 활동 활성화 △청소년 공부 시설 확대 △기초학력 지원 사업 확대 △학교 노후화 시설 개선 △교내 가로등 추가 설치 등이며, 이에 대해 무주교육지원청 소관부서 업무 담당자들은 해당 정책 제안을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무주학생의원들은 각 학교와 무주지역을 대표하여 제안하는 여러 정책을 잘 검토하고

/무주=전문선 기자

